

## 발해 대장경 추정 '대화령국장' 공개

성암고서박물관  
조병순 관장 도서 입수

발해의 것으로 보이는 대장경이 공개돼 불교·역사학계를 흥분시키고 있다.

서울 성암고서박물관 조병순 관장은 최근 일본으로부터 입수한 <대화령국장(大和寧國藏)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권 제38>을 8월 6일 공개하며, 8·9세기경에 발해 영토 안에서 제작된 <대장경>의 일부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불경은 길이 8.5m, 세로 28.6cm의 크기로, 황마지에 먹으로 쓴 것(寫經本)이다.

이 불경 앞머리에 적힌 '육통'자는 <대장경>의 함차(函次)번호(일련번호)를 표시할 때 사용된 천자문 글자다. 이 불경이 대장경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당나라의 <개원성교록>(730년)의 체제와 일치한다.

## 8~9세기 제작 '화엄경' 대장경 일련번호 표시 신라 사경글자체 흡사

이처럼 천자문 순서를 따른 함차 방식은 당대(唐代)까지만 발견되는 데다, 불경의 글자가 8세기 경 신라의 사경 글자체와 흡사한 것이 많아 8·9세기 경에 제작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불경이 발해의 것이라는 근거는 불경에 소장처 겸 제작자 의미로 적혀 있는 '대화령국'에 있다. '화령'은 함흥지방의 옛 명칭인데, 8·9세기에 이 지역을 지배한 국가는 발해(698~926년) 때문이다. 발해는 함흥지방에 남경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박상국 실장은 "단순전사본이라고 보기에는 서체나 지질 등의 품격이 뛰어나 대장경의 일부로 보는 편이 옳다"고 말했다. 주황색 선을 그어놓았고, 황마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 제작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조 관장은 "대장경"이란 경전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국력과 불교문화가 융성할 때 비로소 제작될 수 있다"며 "발해는 통일신라 못지않은 불교국가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병순 관장 인터뷰 14면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 힘든 세상, 희망은 어디에...

## 대도시 인근 사찰 '점심인구' 급증... 기도객은 줄어 특별법회·도서제공 등 고통 덜기 프로그램 절실

8월 12일 낮 12시 경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만난 30대 후반의 한 남자. 이를 밝히기를 꺼려하는 이 남자는 매일 점심 식사를 봉은사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주식 투자에 실패한 뒤 실직까지 한 이 남자는 "돈이 없어서 사찰에서 밥을 먹는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전 10시, 30대 초반 남자가 점심식사를 하고 시원한 그늘을 찾았다. 잠시 후 주위를 두리번거려다 신문지 한 장을 바닥에 깔고 널브러지듯 바닥에 몸을 눕혔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 한 관계자는 "평일에도 50여명 이상 점심식사를 할 뿐 아니라 이 가운데 젊은 남성들도 눈에 띈다"며 달라진 모습을 설명했다.

장기불황의 그늘은 사람에도 드리워지고 있다. 평일 점심시간에 맞춰 도심 사찰을 찾는 젊은 남성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 범어사 금정불교대학이 매주 목요일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최근 이곳을 찾는 인원이 700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늘었다.

8월 11일 기도처로 유명한 대구 갖바위에서 만난 부산지역 불자는 "갖바위에서 기도하는 불자들을 나르기 위해 부산에서 버스 3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전에는 기도도 람을 찾는 불자들로 가득 찼지만, 요즘은 버스 3대를 합쳐도 45명밖에 안된다"고 말해 경기침체 현실을 극명하게 나타냈다.

사찰수련회 역시 경제 한파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공주 감사 한 중무원은 "수련회 참석자 중 40~50대가 70% 정도"라고 말해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이 수련회 등을 통해 안정을 찾으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경기침체 장기화로 청년실업자, 명퇴자들이 평일 낮에도 사찰로 향하지만 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은 '무료급식' 뿐. 경기침체 그늘에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불교

는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봉은사에서 만난 청년실업자는 "공양간 근처에 불경 등 서적을 비치하면 무료급식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평일 낮 딱히 할일도 없는 무직자나 실직자들이 사찰에서 점

심식사 후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점심을 해결하고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으며 내일을 준비할 수도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도심사찰의 경우 지역공동체와 연계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관악산 연주암에는 30~40대 실직자들이 많이 찾아와 시름을 달래고 간다. 사진=남동우 기자

## 혜국 스님의 '희망찾기 조언'

### "해결책은 자기 내부에 있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무척 고통스러워합니다. 한두마디 말로서 무슨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반드시 헤쳐 나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사실상 정 처인들과 나를 포함한 종교인들이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지금 보다 물질적으로 모든 여건이 부족하고 불편했지만, 늘 희망을 놓치지 않았습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10년동안, 또한 10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100년동안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지도자들은 앞날을 생각하며 비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그날 언론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또한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경적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은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며, 시간적으로 21세기를 선택한 것 또한 다름 아닌 우리 스스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자 및 실직자를 위한 법회나 실직자 쉼터, 각종 수련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실직자를 위한 단기출가수련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은 "무직자나 실직자들에게 사찰을 적극 개방해 정신적 재우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취재반**

## "산이 살아야 나도 산다"

### 천성산 공사 중단 협상 결렬 지울 스님 단식 계속...각계 우려

고속철 천성산 구간 공사 중단을 놓고 벌어졌던 협상이 결렬됐다. 6개월 공사중단을 약속받았지 못하면서, 지울 스님의 단식 회향 등 모든 향후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에 빠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등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교계, 청와대, 건설회사, 환경단체 대표들은 8월 11~13일 고속철 천성산 구간 공사를 중단해 부산고법 판결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울 스님의 단식을 중단시키자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이들은 13일까지 '6개월 공사중단 기간'을 합의문에 반영하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불교계와 환경단체는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지울 스님은 "청와대가 고속철 공사 백지화를 약속한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천성산고에 얽어낸 '노선검토협의회' 활동에서도 천성산 대책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협상을 하겠다는 정부가 지금도 고속철도공단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어 더욱 믿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합의 조건으로 요구한 것에서도 '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보다 '항소심에 대한 결과 승복' 내용만을 강조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협상 잠정 결렬을 확인하는 성명서를 8월 13일 발표하고 "지울 스님이 죽는다면 모든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며 불교계의 총궐기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9면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전화 (02)737-0090 대표 737-8881

**활안 스님**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 들으면서  
쓸데없이 입만 아프게 하지만  
아가야 너는 나이 쉰이 먹었냐 거꾸로 먹었느냐?

활안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그림·조태호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80권本 화엄경의 완역판 드디어 재간행!**

# 無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無比)큰스님께서 완역한 『한글 화엄경』(12권)이 품절된지 10년만에 드디어 재간행되었습니다!  
3만명의 불자가 이미 『한글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 대승불교의 최고의 경전인 華嚴經이無比스님(前법어사 講主)에 의해 한글로 完譯됐다. 도서출판 민족사가 최근 펴낸 『한글 화엄경』(전12권)은 善財童자의 구도과정을 그린 入法界品을 비롯해 80권本 화엄경 전 40品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대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조선일보 1994년 간행당시 -  
- 최근 간행된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편찬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신문 1994년 간행당시 -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의 특징**

- ① 80권本 화엄경(전40품)의 완역판.
- ②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세 한글 번역.
- ③ 중국 天童山판 80권本 화엄경 원문 수록
- ④ 상세한 단락구분과 소제목이 첨부되어 내용 파악이 용이함.

**구입방법** ① 특가: 전 12권 220,000원 ② 신청 즉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③ 송금방법: 아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십시오.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계승 외환은행 059-18-17838-6 윤계승  
농협 053-02-109450 윤계승 조흥은행 390-01-033705 윤계승

도서출판 민족사 우편번호 110-130 서울 중로구 청진동 208-1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E-mail: minjoksa@chollian.net